

배우는 즐거움·성취감… 필요시 외적 자극도

■학습동기 유발

동기는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에 대한 동기가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을 먹는 건 말이지만 물가에 데리고 가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의 동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우선 내적 동기는 학생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지로 만들어진 동기로 가치와 책임감, 그리고 신념, 여기에 성취감이 더해진다.

내적 동기로 생긴 학습은 공부하고 배우는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부류의 학생은 대단히 배우는 것을 즐기며 스스로 극복해 내는 힘이 강한 경향이 있다. 이는 학습 자체에 대한 욕구 및 흥미와 함께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인해 배움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외부에 의해 예를 들면 부모의 강압에 의해 생기는 학습동기는 배움 그 자체에 흥미가 있을 리가 없고 단지 내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 정도 하면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보상을 받거나 혹은 부모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억지 공부라 된다.

이렇듯 외적 동기에 의한 학습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단발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



대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게 마련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학생이 곧 대입에도 성공한다. 시카고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빈둥거리는 자녀에게 이번에 시험 잘 봐서 모두 A를 받으면 내가 새 컴퓨터를 하나 사주마. 혹은 시험공부를 안 하면 벌을 준다는 말에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목적 지향적인 것이다. 이런 외적 동기에 의한 공부는 사실 한계가 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정되고 있고 그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방법

▲내적 동기 유발 방법

①자녀에게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만든다. ②학습한 후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 큰 도움이 된다. ③실패의 경험을 줄이도록 한다. 실패하고 나면 낙담하여 다시 시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④자녀에게 지식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는 롤모델을 제시한다.

▲외적 동기 유발방법

①학습의 목표를 알게 하라. ②학습과정을 이해시키고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만든다. ③학습 결과를 놓고 무엇이 잘못된 결과를 나오게 했는지 짚어보고 알게 하라. ④팀의 멤버로서 자신감을 갖게 한다. ⑤다양한 학습 자료와 함께 실제 예를 많이 들려준다. ⑥개개인의 장점을 찾아내어 반드시 칭찬을 해준다. ⑦배우는 동안 중요한 과정에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한다. ⑧경쟁심을 자극하라. ⑨올바른 학습습관이나 태도를 길러 나가는 계획을 세우라. ⑩상과 벌을 적당히 활용한다.

이밖에도 동기를 유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①미소를 보여라: 부모가 늘 화난 표정으로 공부를 시키면 하려던 공부도 때려치운다. ②아이들의 변화에 섬세한 반응을 보여라. ③책임감을 키우기 위해 적당한 역할을 일임하라. ④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의미 없는 칭찬보다 진심으로 감탄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⑤메모장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라. 감동한다. ⑥자녀의 작품을 전시해 줘라. 자녀의 습작도 대단하게 취급하라. ⑦발표의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주어야 한다. ⑧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도구를 이용하여 가르쳐라. ⑨가끔 질문하라. 인지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라. ⑩상상력을 자극하라.

■내적 동기유발/ 김연아의 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건 마지막 1분

세계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김연아 선수의 심판에 대해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김연아 선수는 그 결과를 의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많은 미디어들이 편파 판정에 대해 쓸쓸해하고 있다.

동료가 보내준 김연아 스텔라의 글이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다. 그래서 세례명이 스텔라로 통한다. 병판 연기 때마다 빛나는 그녀 검지의 목주반지를 보면 그녀의 확고한 신앙이 전해진다.

[김연아 스텔라의 글 중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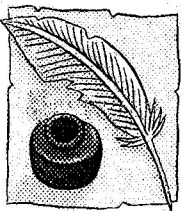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 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 기대치를 낮추고 싶기도 했고, 다가온 기회를 모른 척 외면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늘 열심히 해도 마지막 1도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건 마지막 1분, 그 한계의 순간이 아닐까?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나의 경쟁상대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 좀 안 했으면 하는 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는가. 컴퓨터 게임, 친구들과의 파티, 채팅, 졸림 등 놀고 싶은 나와 싸워 이기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나와 싸워 이겨라. 그 유혹에 넘어간 자와 그 유혹을 이겨낸 자와의 차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적으로 동기를 유발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즈
856-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제35회 미주 한국일보 문예작품 공모전

21세기를 선도해 가는 한국일보 미주본사는 문학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문예작품 공모전을 미전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의 제35회 문예공모전은 미주문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등용문으로 그동안 역량있는 신인들을 다수 배출, 이민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한국일보 미주 본사가 창간기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문예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문예잔치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나갈것 입니다.

미주 최고 권위의 신인작가 등용문에 작가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미주 한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응모부문 및 상금

부문		단 편 소 설	생 활 수 기	시
내 용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3편 이내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제 한 분 량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3편 이내 (컴퓨터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
상 금	당선작	1편 \$2,000	1편 \$1,000	1편 \$1,000
	가 작	2편 각 \$1,000	1편 \$500	2편 각 \$500
	장려상		1편 \$300	2편 각 \$200

2. 마감일자 :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마감일 소인 유효

3. 보내실 곳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4. 당선작 발표 : 2014년 6월 7일 (토요일)

5. 시 상 : 6월말~7월초 (추후개별통보)

6. 문 의 : (323)692-2000, 2068

응모요령

- * 모든 응모작품은 어떤 지면(인터넷매체포함)에도 발표한 적이 없는 순수한 창작 이야기함. (표절했거나, 동일한 작품이 다른 매체에 중복된 투고 사실이 밝혀지면 발표 후라도 당선을 취소합니다)
- * 응모작품 결봉에는 “문예공모 담당” 이라 쓰고 작품 맨 첫 장에 별도로 응모분야 및 작품 제목을 명기하고, 인적사항 (이름(한글/영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이름이 필명인 경우 본명을 따로 써주십시오.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인터넷, 팩스로는 응모작품을 받지 않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